

신춘문에 당선작

동화

오미르바다 입양 보내기

장미연

모든 게 너석 때문이었다. 모든 게 너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게..... 정말이지 난 조금도 너석을 괴롭힐 생각 따윈 없었다. 뭐 그다지 달가운 존재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대놓고 너석을 미워하거나 해코지 할 생각 따윈 조금도 없었다. 그리고 설마...설마 엄마가, 여태껏 십 년 동안 나만 사랑해온 엄마가 그런 쪼끄만 녀석 하나 때문에 사랑이 식을 거라고는 조금도,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그날 일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그 일에 대해서도 더 방정해줄 수 있었을 텐데..... 아, 아쉽다. 하지만 이미 옆질러진 돌인 걸 어떡할단 말인가.

1학년 때였다. 같은 반에 덩치만 믿고 설쳐대는 대범이라는 무식한 아이가 있었다. 나도 나를 싸움짱이었던 터라 그 녀석과 자주 붙곤 했다. 그날도 여김없이 그 녀석과 한판 붙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조금은 억울한 이유로 나만 더 오래 발을 받았다.

“에이 씨, 맨날 나만 더 혼나!”

투덜거리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저만큼 덩치만 믿고 설쳐대는 대범이가 보였다. 남은 분이 덜 풀려 한편 더 불어오는데,

“오빠야!”

어디선가 물방울 같은 목소리가 또그르르 굴러 나왔다. 병설 유치원에서 갈래 머리를 묶은 꼬마애가 분홍색 주머니를 내놓으며 뛰어 나왔다. 그리고는 대범이 녀석에게, 무식한 대범이 녀석에게 찰살 불더니 웃어 준다. 봄바람같이, 인상과 대범이가 봄바람에 간지러운 듯 흐물흐물거린다. 봄바람이 나랑 싸우다 생긴 피린 멍을 격정스레 들여다 본다. 새싹을 어루만지는 봄햇살같이, 그 봄바람, 그 봄햇살 때문이었을까? 난 그날 이후로 싸움짱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그날 처음 “와! 톱! 대!”라는 말을 잘근잘근 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때부터였다. 내게도 동생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부러움과 외로움에서 시작한 작은 생각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나중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람으로까지 자랐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을 조르게까지 되었다.

어차피 힘든 결정 하시는 게 어왕이면 순하고 예쁜 여동생으로 만들어주실 것이지 귀찮게끔 허구한 날 뽀뽀 하는 저런 애송이 남동생이나 만들어 주시나. 아, 정말이지 저런 녀석은 ‘뽀뽀’요. 필요 없어요. 녀석은 돌까지 지났으면서 아직까지도 새벽이면 깨서 이 형님의 수면을 방해하는 찰떡사니 없는 것만 같다. 그런데도 엄마는 내게만 찰떡사니 없다고 한다. 이젠 정말 억울하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녀석을 버리는 사악한 형이 되어가나 보다.

어느 날 엄마와 외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마주치는 4층 아줌

마를 또 만났다. 동글동글한 볼에 얼굴까지 동글동글한 그 아줌마의 눈은 내모난 뺨에 안경 너머에서 늘 웃고 있었다. 어쨌든 바다 녀석이 태어난 뒤로 내게는 하나도 상냥하지 않은 울 엄마보다 열 배는 상냥하게 날 보고 웃어주신다. 그런데 그 날은 인사하는 나 보다 바다 녀석을 보고 더 반가워 하셨다. “어머, 애가 많이 컸네? 아유, 귀여워라. 어머, 웃기도 잘 웃네.”

“그러게요. 언제 크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하늘아, 인사 해야지.”

엄마는 아줌마랑 수다 떠느라 내가 인사하는 것도 못 봤나 보다. 녀석이 생긴 후로 늘 이런 식이다. 억울한 잔소리까지 들어야 한다. 사람 좋아 보이던 그 아줌마도 내 인사는 건성으로 받더니 나중에는 아는 체를 하셨다.

“어머, 하늘이도 많이 컸구나. 동생 생키니가 좋지?”

동생 생기니가 좋냐고? 이럴 땐 인사차례라도 ‘네, 정말 좋아요.’ 라고 해버려야 대담해줘야 한다는 것쯤은 나도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가 사람들이 물어오면 심술이 나서 좀 더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자 늘 부드럽게 웃기만 하던 아줌마의 눈이 단추알처럼 동그아졌다.

“아니, 왜?”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맨날 뽀뽀 울고

“어머 그러시구나? 하늘아, 너도 들었지?”

아이고, 두 분이 아주 쿡짜이 잘 맞으셨다.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보죠?

“진짜로 입양 보내게? 그럼 뒤 멀리까지 보낼 거 있어? 그냥 나한테 보내. 난 바다 욕 삼나니깐.”

403호 아줌마가 엄마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긐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애 아 빠하고 상의해보고요.”

엄마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치, 그럼 누가 속을 줄 알고? 그래요. 보내버려요. 안 보내기만 해봐라. 엄마와 403호 아줌마의 유치한 수다는 그렇게 끝났다.

수다인 것에도 상상만 해도 신났다. 녀석이 사라지다니..... 그럼 그 날로 난 달콤한 수면을, 자유로운 독서를, 방해 안 받는 블록 조립을..... 으흐흐흐. 상상만 해도 신났다. 예휴, 상상만 하면 뭐 하나. 어차피 날 달래기 위한 엄마의 연거였을 뿐인 걸.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도 신경 안 썼다. 맨날 여자애들 반지 쪼가리 같은 것들만 뽑히는 해바라기 문구점의 뽀기 만큼도 기대 안 했다. 어차피 날 놀리기 위한 장난일 뿐이었으니까.

어? 어? 그런데..... 몇 방 자고 학교 몇 번 갔다 왔더니 장난이... 장난이 아니란다. 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 날 아빠랑 엄마가

따라 갔다가 다시 퇴원하던 날 바다와 함께 온 건데? 털도 안 난 강아지새끼 같이 쪼꼬 망던 그 녀석이 아빠 품에 안겨 하품을 했지. 아, 그 땀 나도 녀석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에이~설마?

학교에서도 내내 그 빨간 여행 가방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귀찮은 녀석, 가려만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왜 또 끝까지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403호? 403호? 슬쩍 한번 들여다 볼까? 봐서? 그 다음엔? 뭐 그냥 한 번 들여다 보고만 오면 되지. 그 애 아줌마를 잘 따르거나 하는지 슬쩍 한번 보고만 오지. 뭐, 그 애 보고만 오는 거야. 뭐 녀석이 걱정되거나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 그래도 입양을 보냈으니 최소한 잘 있는지는 봐 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였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가방을 던졌다. 바로 나오려는데 빨간 여행 가방이 아직도 현관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서 있어.

“깊은하늘, 저 가방 좀 403호 갔다 줄래? 엄마는 차마 못 가겠다.”

안방에서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난 목소리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에이, 귀찮게 내가 왜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빨간 가방은 그대로 둔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403호 현관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짜식, 벌써 적응해버렸나? 이렇게 빨리? 아냐, 그럴 녀석이 아닌데. 그냥 한번만 직접 눈으로 보고 갈까? 403호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란 건 알지만 혹시 알아? 만약에, 정말이지 만약에 입양한 척 하고 우리 미르바다를 이상한 데다 팔아버렸으면 어떡했? 그래, 그것만 확신하고 가자.

초인종을 누르는 감지 손가락이 이상하게도 떨고 있었다.

“어머, 하늘아! 무슨 일이니? 동생이 걱정

모든 게 그 녀석 때문이었다

모든 게 그 녀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게...

억울하게 나만 야단맞게 하잖아요.”

“으흐흐. 하늘이가 동생 때문에 힘든가 보구나.”

힘든 정도 뿐이었어요. 아주 없었어 버렸으면 좋겠구만. 이런 내 맘이 표정으로 나타났을까? 엄마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럼 우리 바다 입양 보내봐?”

입양이라고? 정말 우리 엄마 유치하기도 하시지. 내가 뭐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유치원생인 줄 아니봐. 엄마는 내가 바다 댁에 속삭이라고 막 투덜대기 시작할 때부터 절뚝거리며 입양 얘기를 꺼냈다. 내가 뭐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나도 엄마의 잔머리에 지지 않고 눈 툴바로 뜨고 대꾸했다. 그런데 이번엔 403호 아줌마가 기세 좋게 말대꾸 하는 내 말을 받아

“그래? 정말이니? 아줌마는 아기가 없어서 하늘이네가 항상 부럽단데.....”

“어머 그러시구나? 하늘아, 너도 들었지?”

아이고, 두 분이 아주 쿡짜이 잘 맞으셨다.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나 보죠?

“진짜로 입양 보내게? 그럼 뒤 멀리까지 보낼 거 있어? 그냥 나한테 보내. 난 바다 욕 삼나니깐.”

403호 아줌마가 엄마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긐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애 아 빠하고 상의해보고요.”

엄마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치, 그럼 누가 속을 줄 알고? 그래요. 보내버려요. 안 보내기만 해봐라. 엄마와 403호 아줌마의 유치한 수다는 그렇게 끝났다.

수다인 것에도 상상만 해도 신났다. 녀석이 사라지다니..... 그럼 그 날로 난 달콤한 수면을, 자유로운 독서를, 방해 안 받는 블록 조립을..... 으흐흐흐. 상상만 해도 신났다. 예휴, 상상만 하면 뭐 하나. 어차피 날 달래기 위한 엄마의 연거였을 뿐인 걸.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도 신경 안 썼다. 맨날 여자애들 반지 쪼가리 같은 것들만 뽑히는 해바라기 문구점의 뽀기 만큼도 기대 안 했다. 어차피 날 놀리기 위한 장난일 뿐이었으니까.

어? 어? 그런데..... 몇 방 자고 학교 몇 번 갔다 왔더니 장난이... 장난이 아니란다. 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느 날 아빠랑 엄마가

따라 갔다가 다시 퇴원하던 날 바다와 함께 온 건데? 털도 안 난 강아지새끼 같이 쪼꼬 망던 그 녀석이 아빠 품에 안겨 하품을 했지. 아, 그 땀 나도 녀석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에이~설마?

학교에서도 내내 그 빨간 여행 가방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귀찮은 녀석, 가려만 조용히 사라질 것이지 왜 또 끝까지 날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403호? 403호? 슬쩍 한번 들여다 볼까? 봐서? 그 다음엔? 뭐 그냥 한 번 들여다 보고만 오면 되지. 그 애 아줌마를 잘 따르거나 하는지 슬쩍 한번 보고만 오지. 뭐, 그 애 보고만 오는 거야. 뭐 녀석이 걱정되거나 다시 데려오고 싶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었다. 그래도 입양을 보냈으니 최소한 잘 있는지는 봐 주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였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가방을 던졌다. 바로 나오려는데 빨간 여행 가방이 아직도 현관 앞에 떡 하니 버티고 서 있어.

“깊은하늘, 저 가방 좀 403호 갔다 줄래? 엄마는 차마 못 가겠다.”

안방에서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고 난 목소리 같았다. 평소 같았으면 ‘에이, 귀찮게 내가 왜요?’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빨간 가방은 그대로 둔 채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403호 현관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났다. 짜식, 벌써 적응해버렸나? 이렇게 빨리? 아냐, 그럴 녀석이 아닌데. 그냥 한번만 직접 눈으로 보고 갈까? 403호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란 건 알지만 혹시 알아? 만약에, 정말이지 만약에 입양한 척 하고 우리 미르바다를 이상한 데다 팔아버렸으면 어떡했? 그래, 그것만 확신하고 가자.

초인종을 누르는 감지 손가락이 이상하게도 떨고 있었다.

“어머, 하늘아! 무슨 일이니? 동생이 걱정



그림 = 최재영

▲조선대 회화과와 영국 슬레이드 예술대학, 워싱턴 예술대학원 졸업 ▲광주·서울·런던 등지에서 11차례 개인전. 유럽·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 등지 국제 아트페어와 기획 초대전 참여

모든 게 그 녀석 때문이었다. 모든 게 그 녀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게... 억울하게 나만 야단맞게 하잖아요. 으흐흐. 하늘이가 동생 때문에 힘든가 보구나. 힘든 정도 뿐이었어요. 아주 없었어 버렸으면 좋겠구만. 이런 내 맘이 표정으로 나타났을까? 엄마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럼 우리 바다 입양 보내봐? 입양이라고? 정말 우리 엄마 유치하기도 하시지. 내가 뭐 아직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유치원생인 줄 아니봐. 엄마는 내가 바다 댁에 속삭이라고 막 투덜대기 시작할 때부터 절뚝거리며 입양 얘기를 꺼냈다. 내가 뭐 그 말에 속을 줄 알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나도 엄마의 잔머리에 지지 않고 눈 툴바로 뜨고 대꾸했다. 그런데 이번엔 403호 아줌마가 기세 좋게 말대꾸 하는 내 말을 받아 “그래? 정말이니? 아줌마는 아기가 없어서 하늘이네가 항상 부럽단데.....”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2년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 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 이상)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마니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피부샵(스파크사제), 인터넷, 안마기, 이온원, 세신, 세화.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